

생산성 · 상생 · 청년 · 공동체까지 '완벽'

민선7기 '소득과 삶의 질 높은 15만 완주시 대도약'을 기치로 내건 완주군이 지역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에서 전 분야를 석권하고, 지방자치종합경쟁력 전국 4위를 기록하는 등 '으뜸도시 완주'를 확고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 전 분야 석권
완주군은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열린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 '전 분야'에서 수상하는 기록을 세웠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는 매년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 단체가 참여해 우수정책을 홍보하고, 지방자치의 미래를 논의하고 있는 자리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제8회 지자체 생산성 대상, 지자체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공동체 우수사례,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시상발표에 대한 수상이 이뤄졌다.

완주군은 5개 전 분야 수상과 함께 지자체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시상발표,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발표 시상발표에서 우수사례 발표까지 달랐다.

▲생산성 대상, 전국 유일 2관왕

우선 지자체 생산성대상에서 완주군은 전국 유일 2관왕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생산성대상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각 지자체의 인적 역량, 건전재정 역량 등을 측정해 지자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시상하고 있다.

완주군은 생산성지수, 우수사례 분야에서 수상하며 지자체 중 유일하게 2관왕을 차지했다. 특히,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정도, 경제활동친화성, 평생교육 이용 수준, 보건복지시설 확충 수준, 지역주민 행복도 등에서 최고등급을 받았다.

▲전북혁신도시 상생으로 풀다

또한, 완주군은 2018 지자체간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완주-전주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주제로 제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혁신도시 인구 급증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 요구 대응과 두 개의 행정구역에 따른 행정상 중복부자 해소를 위한 완주-전주 상생사례' 발표를 통해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지자체간 협조·상생을 통한 시너지 효과, 동일생활권 중복부자 문제 해소 등에 호평을 받았다.

▲청년완주 JUMP, 행안부 장관상

완주군의 청년정책 '청년완주 JUMP 프로젝트'는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시상발표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품에 안았다.

청년완주 JUMP 프로젝트는 '청년! 완주에서 놀고 먹고, 완주에서 살자'라는 슬로건으로 전국 군 단위 최초로 청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조사를 실시하는 등 청년들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거주·문화·복지 등 청년층 삶의 다양한 문제를 일차리와 함께 해결함으로써 청년 실업을 등 청년문제 개선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
지난달 30일 지방자치박람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2년연속 수상을 차지해 주민들이 기뻐하고 있다.

→
지방자치 종합경쟁력 인증서 수여식(왼쪽)과 지난 31일 열린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로컬푸드 지역단위부문 대상을 차지해 기뻐하는 모습.(오른쪽)



▲공동체 완주군이 '으뜸'

공동체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완주군은 박람회에서 다시 한 번 빛났다.

완주군 용진읍 도계마을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18년 공동체 우수사례 발표한마당'에서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용진읍 도계마을은 두부공장·김치공장 운영을 통해 마을주민 9명의 고정일자리 창출, 연간 6억원 이상의 매출액 증가 등으로 공동체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번 공동체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도계마을은 그 동안의 성과를 전국에 널리 알리고 친체된 농촌지역에서 마을공동체가 화합해 나아가야 할 모범사례를 제시했다.

▲주민자치박람회 지역활성화 4년 연속 수상
완주군 고산 주민자치회는 제17회 전국주민

자치박람회에서 지역활성화 분야 장려상을 수상, 4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고산면은 이번 박람회에서 '고산 교육 공동체 활동 및 고산면지 발견' 사례를 통해 고산군 이후 100년 만에 발간되는 고산면지와 지역주민들이 설립하고 청장년들의 교육길잡이가 될 미래의 대안학교 '은누리살이사회적협동조합' 및 여러 지역단체들과 업무협약에 따른 사회적 약자 지원에 대한 호평을 받았다.

▲지방자치경쟁력 전국 최상위 인증

완주군은 이번 지방자치 박람회 전 분야 석권을 비롯해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 지방자치경쟁력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인증받기도 했다.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 제2회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모델 분석 결과 완주군은 종합경쟁력 부문 전국 4위, 경영활동 2위를 기록하며 인증

지방자치박람회에서 생산성대상 생산성지수·지역경제 2개부문 수상 용진읍 도계마을 공동체 우수사례 고산 주민자치회 지역활성화 호평 주민 삶 전반에 걸친 정책들 '결실'

서를 수여받았다. 완주군은 전국 기초 군 평균점수(478.9점)를 크게 웃도는 총 531.95점으로 전국 군 단위 전국 4위에 선정되며 도내에서 유일하게 전국 상위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같은 완주군의 성과는 '소득과 삶의 질 높은 15만 자족도시 완주' 군정목표 아래 일자리, 삶의 질, 농업농촌 활성화 등 주민들의 삶 전반에 걸친 정책들이 선순환 경제구조를 가지면서 인구증가, 재정확충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박성일 완주군수

고, 전북 4대 도시로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박람회 석권과 지방자치경쟁력 최상위권 인증은 완주군의 경쟁력이 전국 최고 수준임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입증 받은 것으로, 앞으로 주민들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 서울로 갑니다!

해발 400~800m 연평균 11.3°C
안전한 먹거리! 반딧불이가 배당합니다!

농·특산물 홍보 & 판매행사

기간 : 2018. 11. 2(금) ~ 11. 7(수)

장소 : 농협 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
(창동,고양,성남)